

역시 대한의 ‘SON’… 실력도 인성도 ‘TOP’

손흥민, 단 하루 쉬고 중국전 선발
88분 누비며 상대 반칙 이끌어내
PK 유도·세트피스 골 도움 ‘활약’
혹사 논란에도 “이제 쉬면 된다”



한국 축구대표팀 에이 스 손흥민(토트넘)이 17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 나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중국과 경기에 선발 출전한다

는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토트넘 팬들은 쉽게 믿지 못했다.

수백명의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선발 소식을 알린 토트넘 구단 트위터 계정을 찾아 손흥민의 몸상태를 걱정했다.

이런 반응은 당연히 보였다. 손흥민은 수개월 전부터 쉽지가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올 시즌을 앞두고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했고, 소속팀에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리그컵,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쉬지 않고 나섰다.

그리고 2018 자카르타 팔렐방 아시안게임에 이어 아시안컵까지 출전했다.

일정도 살인적이었다. 그는 14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에 풀타임 출전한 뒤 곧바로 아시안컵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UAE)로 이동했다. 그리고 단 하루를 쉬 뒤 중국전에 선발로 출전했다.

한국 대표팀으로선 그만큼 적절했다. 중국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조 2위로 밀려나 비교적 강팀들과 토너먼트를 펼쳐야 했다.

기성용(뉴캐슬) 등 부상 선수들도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파울루 벤투 감독의 선발 출전 지시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주장 완장을 차고 한국 대표팀의 중심을 잡았다.

손흥민은 남아있는 에너지를 짜내 오로지 팀 승리를 위해 쏟아부었다.

손흥민은 조연을 자처했다. 본인에게 수비수들이 몰려들자 반칙을 유도하거나 동료 선수들의 플레이를 도왔다.

그는 전반 12분 김문환의 오른쪽 측면 패스를 잡은 뒤 페널티 지역에서 돌파를 시도해 상대 수비수 반칙을 끌어냈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대표팀 동료 황의조에게 양보한 뒤 뒤로 물러서 첫 득점 모습을 지켜봤다.

두 번째 골도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다. 손흥민은 후반 6분 오른쪽 코너킥 키퍼로 나서 정확한 크로스로 김민재의 헤딩골을 도왔다.

후반 31분엔 오른쪽 코너킥 키퍼로 나서 아무도 막지 않는 황희찬을 발견해 재빠르게 패스하는 기회를 발휘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상대 팀 선수들의 거친 집중 마크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개의치 않았다.

손흥민은 2-0 승리 후 인터뷰에서 혹사논란에 관해 “경기에서 승리하면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승리했으니 이제 많이 쉬면서 회복하면 된다”고 말했다. 16강전 각오를 묻는 말엔 “잘 휴식하면서 먼 곳을 보기보다 주어진 위치에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6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 나얀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중국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손흥민이 리우이밍의 수비를 따돌리며 돌파하고 있다.

/연합뉴스

‘꽃길’ 벤투호, 결승까지 이란 피한다

조 1위 대진 유리…8강 사우디·4강 호주·일본 상대 가능성

축구대표팀이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중국을 꺾고 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치면서 59년 만의 우승을 향해 한걸음 수월한 길을 걷게 됐다.

16강 이후 단판 승부에선 객관적인 전력 외에도 변수가 많아 안심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상대와의 때 이른 만남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우승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7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중국과의 조별리그 C조 최종전에서 2

-0으로 승리한 대표팀은 곧 아부다비를 떠나 16강 결전지 두바이로 이동한다.

한국이 중국에 비기거나 저서 조 2위가 됐다면 20일 곧바로 16강에 나서야 하는 피곤한 일정이었으나 조 1위가 되면서 다섯 이상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16강에 나선다.

16강 상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선 6개 조 2위까지가 16강에 직행하고 조3위 6개 팀 중 상위 4개 팀도 16강에 합류한다.

한국은 22일 밤 10시 두바이 라시드 스타디움에

서 A·B·F조 3위 중 한 팀과 맞붙는다.

현재로서는 FIFA 랭킹 113위 바레인코 16강 대결이 유력하다.

바레인을 꺾으면 25일 오후 10시 아부다비로 돌아가 8강전을 치른다.

8강 상대는 16강에 선착한 이라크와 아직 결정되지 않은 E조 선두인 16강 승자다.

E조에선 2승씩을 달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가 조 선두 자리를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객관적인 전력만을 놓고 보면 사우디(FIFA 랭킹 69위)가 카타르(93위)를 꺾고 조 선두가 된 후 16강에서 이라크(88위)를 꺾고 8강에서 우리를 만

날 수 있다.

벤투호가 새해 첫 평가전에서 0-0으로 비겼던 사우디를 8강에서 꺾으면 준결승은 오는 29일 밤 열린다. 준결승 상대는 개최국 아랍에미리트(UAE)와 키르기스스탄, 호주,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F조 2위까지 네 팀 중 한 팀이다.

UAE와 키르기스스탄의 16강전 승자, 그리고 일본·우즈베키스탄 중 F조 2위가 된 팀과 호주가 벌이는 16강전의 승자가 8강에서 맞붙고 8강을 통과하면 준결승에서 벤투호의 상대가 된다.

FIFA 랭킹으로만 보면 호주(41위)가 16강과 8강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호주의 전력기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긴 쉽지 않다.

아시아권에서 FIFA 랭킹이 가장 높은 29위 이란은 결승 때까지 만날 일이 없다.

/연합뉴스



최선 다했지만… 정현, 호주오픈 2회전 탈락

세계 55위 에르베르에 1-3 패… 서브 열세·실책 발목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5위·한국체대)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6천250만 호주달러·약 503억원) 2회전에서 탈락했다.

정현은 17일 호주 멜버른 파크의 멜버른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4일째 남자단식 2회전에서 피에르-에르베르 에르베르(55위·프랑스)에게 1-3(2-6 6-1 2-6 4-6)으로 졌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의 쾌거를 일궈낸 정현은 올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했으나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낮은 에르베르에 달미를 잡았다.

1세트를 27분 만에 2-6으로 허무하게 내준 정현은 2세트 도중 내린 비 덕에 경기 분위기를 뒤바꿨다.

2세트 에르베르의 첫 서브 게임, 상대가 15-0으로 앞선 상황에서 비가 쏟아져 경기가 중단된 것이다.

약 25분 정도 걸려 지붕을 닫고 코트를 정비한 이후 정현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곧바로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공세로 전환, 2세트를 6-1로 따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정현은 3세트에서 다시 실책을 연발하며 2-6으로 세트스코어 1-2 열세에 놓였고, 마지막 4세트에도 게임 스코어 2-2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하며 탈락이 확정됐다.

3세트에서만 정현은 실책을 에르베르(5개)보다 3배 가까이 13개를 쏟아냈다.

특히 3세트에서 정현은 게임 스코어 2-4로 뒤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40-0으로 앞서다가 결

국 듀스까지 허용, 게임을 브레이크 당하면서 에르베르의 기를 살려주고 말았다.

4세트 게임 스코어 4-5로 몰린 마지막 상대 서브 게임에서도 먼저 한 포인트를 따냈으나 이후 서브 에이스 2개를 터뜨리며 압박해온 에르베르에게 결국 3회전 티켓을 내줬다.

마지막 에르베르의 서브 에이스가 터지자 정현은 마지막 희망으로 챌린지를 신청했으나 허사가 됐다.

이날 정현은 서브 에이스 2개에 그친 반면 13개를 얻어맞았고, 실책은 33-28로 더 많았다.

지난해 이 대회 4강 진출로 랭킹 포인트 720점을 받았던 정현은 이번 대회 2회전 진출 랭킹 포인트 45점만 방어, 이 대회가 끝나면 세계 랭킹 50위 안팎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정현의 개인 최고 랭킹은 지난해 기록한 19위다.

/연합뉴스

광주 FC 골키퍼 이진형 영입

프로축구 광주 FC가 골키퍼 이진형(30)을 영입하며 골문 단속에 나섰다.

광주는 지난 16일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골키퍼 이진형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2011년 제주에서 데뷔한 이진형은 FC 안양, 안산 경찰청(현 아산 무궁화) 등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통산 144경기에 나온 프로 9년 차 베테랑이다.

이진형(189cm·85kg)은 공중볼 캐칭과 뛰어난 반사신경, 1대1 방어가 장점으로 꼽힌다. 또 정확한 킥으로 공격 전개 시 빌드업과 역습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2017년 소속 팀 인천의 K리그1 잔류를 이끌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진형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 다 같이 승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